복을 빌어주는 축복전문가

(창47:1~31)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 47장 전체 말씀 중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전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축복전문가'
'축복전문가'라는 말은 축복을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선민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 선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민이면서 축복전문가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전문가로서의 선민의 삶에서는 복을 구하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참 선민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을 구한다면 참 선민의 모습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복을 바랄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자손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묶여가는 것이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되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전문가로 살라는 뜻이고, 복을 빌어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의 전문가나 통치의 전문가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축복 분야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통치를 하는 대통령도 못하는 것이 축복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선민이 합니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선민이신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전문가로서의 삶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것을 다 누려 봐도 그 복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 복을 약속받은 자들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나 SK같은 대기업에 입사하면 여러분 자신이 말단 사원이지만 선민으로 회장님을 축복해주는 축복 전문가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 전문가가 되려면 무슨 자격시험 같은 것을 봐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터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밭농사 소작농을 하고 있는 시골에 사시는 장로님조차도 이건희 씨나 SK 회장님을 축복해주는 축복 전문가가 되려면, 재벌 총수나 대통령이나 학자나 박사나 명예나 인기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연예인이나 예술가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야 축복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별게 아닐 정도로 대단한 축복을 갖고 있어야 축복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은 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조차도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의 복을 이미 받고 이 세상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축복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중간에서 바로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장면

인데, 앞부분에서는 형들이 5명이 선택이 되어서 대표로 바로를 배알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는데 본문에 보니 만나면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헤어지면서 축복을 해주고 나오는데 이 장면이 뜻하는 바가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야곱이 17년 뒤에 죽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처럼 전성기가 오자마자 죽게 되지만 그것이 야곱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야곱과 많이 닮은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축복전문가로서의 모습인 선민다운 모습을 비로소 야곱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축복해주는 장면에서 의미를 찾아보자면, 야곱의 형편은 기근을 피해 피난 온 이민자입니다. 요셉이 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기근을 피해서 왔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하나도 없었다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70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요셉이 죽은 뒤로는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5년 기근이 남아있어도 애굽에 내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피난민이고 난민으로서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해주는 바로는 누구냐?
온 애굽을 중심으로 근동 전체 지역에 기근이 임하면서 다 죽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리의 등에 업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축복을 추구해서 라반 삼촌과의 갈등을 겪고, 에서에게 죽을 뻔 했던 위협을 느끼면서 모은 모든 재산은 바로 왕의 재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고 어린애 장난에 불과할 뿐 그나마 기근 때문에 많이 소모가 됐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야곱은 맛도 못보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 왕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뜻에서 세상적인 부귀와 형통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와 성읍을 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손길이 닿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와 영화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있고 바로 왕에게는 없는 절실한 내용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축복이 축복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허공에 날리는 공수표처럼 축복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인데 무엇이 부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13-26절에 5년 기근 동안에 애굽에서 일어나는 요셉의 정책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땅을 요셉에게 가져다 바치고 먹을 것을 얻고, 종자를 얻어서 농

사를 지어서 1/5을 바친다는 정책을 통해서 애굽의 전체의 땅을 사들여서 바로의 이름으로 돌리는데, 바로 이것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배경을 이루어주고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땅을 착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되어진 총리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땅을 자기이름으로 재산화하고 있는 왕입니다.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러므로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한, 이 바로 왕의 재산이 유지될 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에서 정해진 복이 태산 같이 쌓인 곳의 정상에 앉아있는 바로에게서 드디어 야곱이 없는 것을 하나 봅니다. 야곱이 그만큼 변한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온갖 영화를 다 주시고, 왕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의 안정을 7년 기근 동안에 주시는데 왕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새도 나라 안에 사건 하나가 터지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는데, 대통령의 잘못으로 하늘이 노해서 재난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에게 엄청난 것을 다 주시고 하나를 안 주시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야곱과 바로의 입장을 비교하자면, 야곱은 티끌과 지푸라기 같고 그 지푸라기 같은 야곱이 태산 같은 바로 왕에게서 감히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선민의 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지 않음을 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축복전문가의 자리에 섭니다.

그 축복전문가의 자리에 서기까지 130년간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한 줄로 회고 하느냐?
“나그네 길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축복 전문가가 되기까지 험악한 삶과 나그네 인생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만 남아있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이 험악한 인생의 결과로 축복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 집에서 쫓겨났고, 라반 외삼촌과 20년간 갈등을 겪었고, 에서에게 다 잃을까 쩔쩔매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숙곳에서

의 잠깐의 안정 이후에 세겜에서의 피바람과,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기근이 임했고…
바로를 만나기 직전까지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길이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험악했을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에서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조상이라고 해봐야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인생이 동일하게 나그네였기 때문에 험악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인생이 험악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면 다 같은 나그네인줄로 압니다.
김삿갓도 나그네였는데 김삿갓이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와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김삿갓이 나그네로 산 인생이 다 다릅니다.
야곱이 나그네로 산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돈, 건강, 자녀 이런 모든 복들을 다 모아서 안정되게 살기를 바랐지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처지를 허락받지 못해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공간적, 장소적으로 떠돌아 다녔고, 마음으로도 평강이 머물고 있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이후에 세겜으로 이주해서 피바람이 불기 전에 숙곳에서 머물던 7~8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안정이라는 것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라면… 그래서 나그네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땅에 있는 복을 쟁취함으로 얻으려고 한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빈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물을 하늘에서 찾은 것이고, 하나님 계신 하늘에 마음을 두었으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된 것입니다. 닻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닻을 땅에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닻을 내릴 만한 곳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그네 생애가 됐으니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풍랑이 부니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음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김삿갓은 복이라는 것도 부질없고 그렇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닌 허무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인데 걱정뿐이고 근심뿐이고 시기

와 질투와 불만과 원망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모양이 이 꼴인지를 모르겠고, 무엇이든지 다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마음의 만족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고, 야곱 같은 스타일의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박할 곳을 허락하시면 선민이 아니죠. 그러자니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땅에 정박하고 싶은데 선민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정박할 곳을 못 찾으니 이놈의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험악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미 나는 다 얻은 것이며, 이 땅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험악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축복 전문가로서 살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복을 얻겠다고 형과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싸우고 그러다가 자기도 속고 험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한 이유는?
조상들과의 비교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생생한 경험은 아들 요셉과의 비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모든 이야기는 야곱이 먼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모른 채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과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 감옥에서 꿈 풀이를 해서 총리가 된 것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를 만난 야곱이 요셉의 생애와 자기의 생애를 비교해봅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시작했던 야곱의 인생 역정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작된 요셉의 인생 역정을 비교해보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7살까지 알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과 어울리지 않고 형들이 단합을 할 때에 그 내용을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시대에 믿을 것은 형제들 밖에 없던 시대에 형들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며 야곱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 증거가 꿈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며, 땅에서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했던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기에 전념했던 것을 안다는 것이고,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노예로 설정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얍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고, 요셉에게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자신은 이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험악한 인생의 이유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복을 갈구했고 이 땅의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너무 강하게 붙드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선민 됨을 포기하실 수는 없기에 일시적으로 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긴 그 하나님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지고 또 져서 심지어는 유일한 의지할 곳인 형제들의 단합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았고, 그 요셉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의 총리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틈새를 보는 것이죠.
바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자리를 노예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미산처럼 쌓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복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는 (짝짝짝)박수를 쳐야 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모습,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 이제 죽음을 17년 앞두고 야곱이 드디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을 불러서 29-31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나오는데 참 장엄한 장면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죽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한다'
이 말은 이제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끝나고, 오직 내 마음의 좋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얍복 강가에서 윽박지르던 야곱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일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좋지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식이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을 갖는 것이

더더욱 좋다고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죽고, 이 땅에서 좋은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경배인데, 이 경배가 선민에게서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은 마지막에 성취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앞 당겨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우리는 뒤에 서서 그 십자가 사건을 회고하며 매일 같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처럼 돈이 없고, 바로처럼 권력이 없고, 바로처럼 복의 정상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너무 허접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수미산 같이 쌓인 복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민이라는 것이 자각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시점부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복을 빌어주는 전문가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왕의 권력, 재산, 영화와 총독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화가 복이 아니라고 하며, 아무런 세상 복이 없는 자신처럼 되어야 한다는 축복 전문가로서의 위용이 떨쳐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용이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으로 축복전문가의 위용을 오늘도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축복전문가로 살게 해주시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복들을 태산처럼 쌓아올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진정한 복이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복으로 느끼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복에 대해 죽는 일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